

광주시 '車 100만대' 예타 결과 앞두고 긴장

KDI 보고서 다음주엔 나와야 정부예산 반영 가능

결과 안 나오거나 부정적 의견엔 물거품 우려

광주시의 최대 현안사업인 자동차 100만대 생산기지 조성사업과 관련한 예비타당성 조사결과 발표를 앞두고 광주시의 속이 타들어가고 있다. 늦어도 다음 주에는 결과가 나와야 하지만 지난 1월 용역에 들어간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시간에 맞춘 보고서를 내놓을 지는 장담할 수 없기 때문이다.

시는 예비타당성 통과를 전제로 국회 예산결산위원회에 자동차 전용산단인 빛고을산단 설계비 353억원의 반영을 요구해놓은 상태다. 조사 결과물이 나오지 않거나, 나오더라도 부정적 의견일 경우 사업 자체는 사실상 물거품 될 우려가 크기 때문에 광주시의 조바심은 더욱 커지고 있다.

광주시 관계자는 9일 "기획재정부에서 예비타당성 미실시로 예산이 누락한 산단 설계비를 예결위에서 통과할 수 있도록 총력전을 펴고 있다"며 "그 전제는 예비타당성 결과가 조만간 나와야 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 사업은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사항인 만큼 정부의 의지가 중요하며 긍정적인 결과를 기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광주시는 올해 예비타당성 통과를 최우선 목표로 삼고 일부 사업규모도 줄였다. 자동차 전자융합센터나 경량화센터

등 6개의 센터 건립 계획을 2~3개 축소하고 연구개발 비용도 절반 가량으로 줄였다. 하지만 광주시가 예타 통과를 위해 사업 규모를 대폭 축소한 만큼 애초 사업 취지를 제대로 살리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이 사업은 오는 2020년까지 8347억원을 투입해 클린디젤, 전기차 등 친환경 자동차 부품단지 및 산업생태계를 조성하는 초대형 프로젝트로 현 정부의 공약이자 운장현 시장의 최대 현안 중 하나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숨방망이 처벌' 버스·택시 불법행위 키운다

광주 승차거부 등 매년 증가

5443건 단속에 과징금 508건

광주시민들이 대중교통을 이용하면서 느끼는 가장 큰 불만은 시내버스의 경우 '승하차 거부', 택시는 '불친절 및 부당요금'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이 버스와 택시의 불법행위가 여전한데도, 좀처럼 개선되지 않는 것은 광주시가 해당행위에 대해 숨방망이 처벌로 일관한 탓이라는 지적이 많다.

9일 광주시가 광주시의회에 제출한 행정사무감사자료(버스·택시 불법행위 단속 및 신고내역 현황)에 따르면 지난 2013년부터 올해 8월 31일까지 2년8개월간 시에 접수된 대중교통 민원 및 불법행위 단속건수는 모두 5443건.

이중 버스가 2025건(37.2%)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법인택시 1863건(34.2%) ▲개인택시 1420건(26.1%) 등이다.

버스는 승하차 거부가 800건으로 가장 많았고 ▲부정차 통과 738건 ▲불친절 523건 등이다.

법인택시는 불친절이 587건으로 최다였다. 이어 승하차 거부(258건)·부당요금(235건)·도중하차(74건) 등이다.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

개인택시는 불친절(389건)·부당요금(236건)·승하차 거부(207건)·도중하차(53건) 등이었다. 버스와 법인·개인택시의 불법행위도 매년 증가 추세인 것으로 조사됐다.

연도별로는 ▲2013년 1853건 ▲지난해 2394건 ▲올 들어 지난 8월 31일 현재 1196건 등이다.

반면 불법행위에 대한 가장 강력한 제재 조치인 과징금 부과건수는 매우 저조한 것으로 파악됐다. 지난 2년8개월간 불법행위에 대한 과징금 부과건수는 전체의 9.3%인 508건에 불과했다. 또 교육 및 시정경고 조치는 각각 505건(9.3%)·1366건(25.1%)이었다. 나머지 2504건(46.0%)는 처리불가 조치였다.

이에 대해 광주시 관계자는 "매년 대중교통에 대한 시민만족도 조사를 하는데, 해마다 시민만족도는 높게 나오고 있다"면서도 "하지만 시민들의 민원이 잇따르는 만큼 개선책을 마련해 시민 불편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광주시 관계자는 "매년 대중교통에 대한 시민만족도 조사를 하는데, 해마다 시민만족도는 높게 나오고 있다"면서도 "하지만 시민들의 민원이 잇따르는 만큼 개선책을 마련해 시민 불편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

광주시, 경제·일자리창출 걸림돌 규제 정비 속도낸다

광주시가 경제활동과 일자리 창출에 걸림돌이 되는 각종 규제개혁에 속도를 낸다.

광주시는 9일 시청 3층 중회의실에서 '2015 규제개혁 추진상황 점검 및 대책 회의'를 열고 시와 5개 자치구의 규제개혁 상황을 점검하고 향후 대책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이날 회의에서 시는 시민 불편해소와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 더 많은 규제를 발굴해 정비하는 것이 시급하다는 판단에 따라 별도의 '규제개혁 상황실'을 운영기로 했다. 또 불합리한 조례에 대해서도 일괄결재 및 긴급안건 제출 등의 방식으로 연내 개정을 완료하기로 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소방관들의 훈훈한 '프리허그' 제53주년 소방의 날인 9일 서울 명동에서 정복과 구조복, 방화복을 입은 서울소방재난본부 소속 소방관들이 관광객들과 '프리허그'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방 평가

"광주학생독립운동 선양사업 지지부진"

김영남 시의원 주장

광주학생독립운동기념회관 이전 작업이 마무리된 지 1년이 넘었지만 관련 선양사업은 제대로 추진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광주시의회 교육위 소속 김영남(서구 3) 시의원이 9일 광주시교육청으로 부터 제출받은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따르면 광주학생독립운동기념회관이 지난해 9월 2일 서구 백일로 중앙공원 에 새 동지를 들었다.



앞서 지난해 4월 시의회는 내용이 담긴 '시교육청 광주학생독립운동 기념 및 정신계승 조례'를 제정, 기념사업과 정신계승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 하지만 광주학생독립운동 기념회관 이전이 마무리되고 관련 조례가 제정된 지 1년이 넘었지만 관련 사업은 지지부진하다는 게 김 시의원의 설명이다.

"광주시 자전거 정책 헛바퀴... 재검토 필요"

김동찬 시의원 촉구

광주시의 자전거 이용 활성화 정책이 헛바퀴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9일 광주시의회 산업건설위 소속 김동찬(북구 5)의원에 따르면 지난 9월 말 현재 광주에는 시청, 시 환경공단, 각 구청, 지하철 역사 등 58개 대여소에 523대의 자전거가 배치됐다. 전체 보유대수(767대) 가운데 31.8%인 244대는 고장이며 이 중 148대



는 수리할 수도 없는 상황이다. 이용 현황은 대여소에 따라 천차만별이다. 7대가 배치된 남구에서는 대여횟수가 12회, 북구(7대 배치)도 대여횟수가 32회에 불과했다. 광주시(6천913회), 지하철역 등 도시철도공사(1만671회)는 비교적 이용률이 높았다. 전체 자전거 대여횟수는 2만3천696회로 대당 45.3회에 그쳤다.

"송정역 복합환승센터 부지해결 소극적"

이정현 시의원 지적

광주시가 송정역 복합환승센터 건립부지 문제해결에 지나치게 소극적 자세로 일관해 사업 의지가 부족한 것이냐는 지적이 나왔다.

광주시의회 이정현 시의원은 9일 시 교통건설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정책적 판단이 필요한 시점인데도 검토가 길어지고 있다"며 "좌고우면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문제를 해



결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송정역 복합환승센터 건립사업은 2010년 12월 국토교통부의 공모 시범사업에 선정돼 2014년 착공, 2017년 완공을 목표로 추진됐지만 지난 4월 호남 KTX 개통 후에도 착공조차 하지 못하고 있다.

"탄소은행제 우수시설 선정 엉망"

문태환 시의원 지적

광주시의 탄소은행제 우수시설 선정과정에서 엉망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광주시의회 산업건설위 소속 문태환(광산 1) 시의원이 9일 광주시로부터 제출받은 행정사무감사자료(탄소은행 우수시설 현황)에 따르면 지난해 선정된 탄소은행제 우수시설 27곳 중 7곳은 에너지 사용량이 전년보다 오히려 증가했다. 학교시설 평가순위 1위를 기록한 A



초등학교는 전년대비 전기사용량이 1010kwh 증가했으며, 상업시설 평가순위 1위인 C업체도 전기사용량이 전년보다 384kwh 늘었다. 특히 전체 486곳 중 45.1%인 216곳은 평가자료를 1개 이상 제출하지 않고도 인센티브를 받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종행기자 golee@kwangju.co.kr



눈매교정술

졸린 눈, 짙은 눈꼬리가 처진 눈, 쌍꺼풀 없이 눈매 교정이 필요한 경우 시행

비절개 눈매교정술

눈꺼풀을 절개하거나 당기지 않으며, 눈꺼풀 안쪽으로 실을 넣어 눈을 뜨는 근육의 일부를 묶는 방법으로 눈매를 교정합니다. 현미경을 사용하기 때문에 더욱 정확하고 세밀한 수술이 가능합니다. 기존의 절개법에 비해 부기가 적고 회복기간이 짧아, 크고 자연스러운 눈매를 만들 수 있습니다. 안과에서 눈 성형은 미용적인 측면 뿐만 아니라 눈의 기능적인 면을 고려해 시술할 수 있어 더욱 안전합니다.

◎ 세밀하고 전문적인 수술에 익숙한 성형안과 전문의가 있는지 확인 하십시오

1566-9988

신세계백화점 대각선 맞은편 눈모양빌딩을 찾으세요

진료: 안 소마일 / 라식 / 라섹 / ICL / 백내장 / 녹내장 / 망막 / 눈성형 / 노안



백운광주안과

난임극복을 위한 시엘병원 강좌

- 일시** 2015년 11월 24일(화) 오후 2시
- 장소** 시엘병원 별관 회의실
- 연자** 최범채 원장

나이는 난임에 영향을 끼치는 제일 중요한 요인입니다. 나이가 높아질수록 가임력은 더 낮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35세 미만이고 1년동안 임신을 위해 노력했을 경우 또는 35세 이상이고 6개월 또는 그 이상 임신을 위해 노력해왔다면 난임 치료에 대한 정보를 자세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무진대로 957(광천동) 문의전화 : (062)606-1710